



웹툰의 시대
위근우 지음

웹툰 작가 24인의 노하우

‘미생’ ‘닥터 프로스트’ 등 웹툰 콘텐츠가 기반이 된 소설, 영화, 드라마가 상종가다. 웹툰은 단순히 출판문화의 대안인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다양한 매체에 웹툰 관련 글을 쓰고 있는 위근우 씨가 펴낸 ‘웹툰의 시대’는 웹툰 전성기를 이끄는 젊은 작가 24인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 대한민국 웹툰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폭발성장 중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하루 평균 620만 명이 웹툰을 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은 스펙, 성별, 돈, 나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한 창작의 공간이다. 저자는 웹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를 마음껏 뽐내는 젊은 작가 24명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기발한 소재와 창의적 연출력으로 많은 이들을 열광시키는 슈퍼 콘텐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단테의 신곡, 에피소드와 함께 읽기
차기태 지음

고전 쉽게 읽기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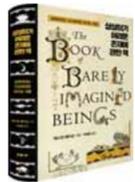
이탈리아 시인이자 사상가인 단테의 대표작 ‘신곡’ 깊이 읽기를 시도한 책이 출간됐다. ‘미술작품을 곁들인 에피소드 서양 문화사’를 쓴 저자 차기태가 펴낸 ‘단테의 신곡, 에피소드와 함께 읽기’는 에피소드식 서술을 통해 고전을 읽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곡’은 단테(지은이)가 순례한 저승세계를 다룬 시로, 중세의 정신과 문예부흥, 종교개혁을 예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된 줄거리는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로 여행하면서 경험하는 과정을 다룬다. 14세기 작품이지만 지금 읽어도 울림이 큰 만큼 보편적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술되거나 언급된 설화나 역사적 사건은 기초 지식이 없이는 접근하기 힘들다.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인물, 신화와 종교 설화에 대한 예비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 중간 중간 저자는 친절한 배경 설명과 아울러 자신의 감상과 비평도 소개한다. 〈필맥·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만한 인간은 못 보는 진귀한 생명체 이야기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

캐스파 헨더슨 지음



1604년에 처음 바다코끼리와 마주친 뒤로, 영국의 뱀사람들은 그 동물이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몸에 기름이 많고 맛진 엄니도 지니고 있어서 꽤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1605년 런던 무스코비 회사는 스피츠베르겐으로 다시 배를 보냈다. 그들은 여름 내내 머물면서 바다코끼리를 잡은 뒤 팔팔 끓여서 비누를 만들 지방을 얻고, 엄니를 모았다. 1606년 여름 무렵에는 너무나 능숙해져서, 상륙한지 여섯 시간 만에 다 자란 바다코끼리 600~700마리를 잡을 정도였다. 〈본문 중에서〉

돌고래·항아리해면 등 생존 위협받는 존재들의 신기한 생태계 소개하고 공존을 위한 성찰 제시

무언가를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 특질을 파헤치는 것과 그 무언가와 비교되는 대상의 특징을 통해 아는 방법이 그것이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인간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된다. 또 하나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을 통해 인간이 누구이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한 책이 나왔다.

환경인문 전문가인 영국의 캐스파 헨더슨이 펴낸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은 진기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신화, 문화, 역사를 아우른다. 책에 소개된 생명체들은 불행하게도 인간의 직간접적인 행위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종들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책은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고생물학부터 최신의 과학지식들까지 버무려져 한편의 생물 전시장을 엿보는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현대 재생생물학의 모티프가 되는

‘아홀로트’부터 배아발달 과정이 유독 선명해 인간과의 동질성을 생각하게 하는 ‘제브라피시’까지 다양하다.

그렇다고 책은 어떤 시점이나 특정한 부류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자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구현하거나 반영하거나 제기하는 특성, 현상, 현안”에 집중한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을 ‘알테이아 고리아’(저자가 만든 용어)라고 일컫는다. 즉, 이는 거대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깜박거리는 실상을 의미한다.

책에 수록된 생명체들은 중세의 동물 우화집에 등장하는 동물보다 더 신비해 보인다. 돌고래나 장수거북과 같이 익숙한 바다생물도 있지만 항아리해면이나 넓적다리불가사리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어종도 있다. 아기의 얼굴을 닮은 ‘아홀로트’, ‘비너스의 허리띠’라는 별칭이 붙은 ‘피뿔해파리’, 털복숭이 집게발을 가진 ‘에티게’, 극한의 생존력을 지닌 ‘곰벌레’ 등은 경이감과 생동감을 준다.

동물들의 신기한 생태를 엿보다 보면 시선은 결국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전이된다.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존재가 인간 외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 “미덕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이며, 성욕과 식욕 면에서 최악인 존재다.”

그렇다고 저자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오호려 결론을 내릴 수 없



다”며 생명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다. 물론 채식을 하거나 모피를 입지 않는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치 있지만, 저자는 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문화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지만, 자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이해 보이는 무리일 수 있다. 울퉁불퉁한 귀, 빠르게 변하는 얼굴, 믿어지지 않게 수직으로 선 몸 위에서 흔들거리는 지나치게 큰 머리를 지닌 우리의 모습이 전혀 우아하지 않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인간이 단지 지능이 뛰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책



에티게(위)와 아홀로트.

의 부제 ‘공존하려는 인간에게만 보이는 것들’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은행나무·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뇌사·안락사·자살... 법 앞에 선 죽음



13가지 죽음
이준wil 지음

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법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성찰하는가? 200여개의 판례와 사건,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 시대의 죽음을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wil 교수가 펴낸 ‘13가지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들여다본다.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우리 시대의 죽음을 법 앞에 세우으로써 그 자체를 이해하려 한다. 책에는 13가지 죽음의 유형과 장례, 32가지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다운 식견이 담겨 있다. 죽음에는 자연사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야기된 수많은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

문사, 사형, 고백적 죽음이 포함된다.

죽음에 대한 법의 개념은 구제성을 지니며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의 규율은 범죄수사, 재판, 처벌, 유언, 상속, 보험금 등 형사적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인간 존엄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규명한다. 생명권, 보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복지 등 다양한 쟁점을 아우른다.

책이 다루고 있는 죽음은 생명 혹은 삶으로 바꾸어도 무방한 이유다. 한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들여다보면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알 수 있다. 〈지식프레이미·1만5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

‘식민사학 얼룩’ 한국 고대사 오류 파헤쳐



고대조선, 끝나지 않은 논쟁
이도상 지음

‘고대조선, 끝나지 않은 논쟁’은 식민사학으로 얼룩진 한국 고대사의 핵심 오류들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왜 감추려 하는가?” 저자는 한국 고대사의 오류를 끈질기게 파헤쳐 각종 사료와 고고학 자료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역사정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역사학계는 일본이 처놓은 식민사학이라는 덫에서 여전히 허우적 거린다.

이제는 식민사관에 채이고 동북공정으로 얼룩진 우리 고대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다. 역사학자 이도상 박사가 최근 펴낸

책에는 민족의 기원에서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역사학계, 이에 대한 모호한 내용을 국사교과서에 실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올바른 지도와 통제를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그 대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들메나무·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특허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